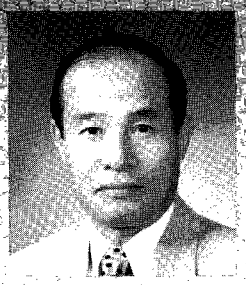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오 경 록
남덕 쌔니테크 대표

무역장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 가운데 생산규모의 증대와 시설의 개선은 업계의 빠른 성장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의한 생산성저하 문제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질병에 대한 문제는 농장의 수익성 결정의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생존자체가 불확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한 병원체 차단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단방역관리는 질병예방의 시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거나 시행하는 농장은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다. 일부는 할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하거나 또는 몇가지 정도만 해보거나 형식만 따르는 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농장입구의 차량소독 장치이고 소독조이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인데 보이기 위한 시설로만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차단방역관리라는 것은 외부에서 병원체가 침입할 수 없도록 격리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관리이므로 농장의 위치, 시설의 배치, 출입통로의 배치 등이 차단방역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닭이 들어오고 나서야 차단방역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장 구입, 건축시부터 차단방역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농장이 구조적으로 시초부터 차단방역이 어렵게 되어 있으면 차단방역의 효과도 떨어지거

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대부분의 대규모농장이나 집단농장이 구조적으로 차단방역이 어렵게 되어있는 사실은 앞으로도 방역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본다.

질병의 종류는 계속 증가하고 기존의 병원체도 복잡하게 변화되어가므로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차단방역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역대책이므로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차단방역관리를 얼마만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르게 될 것이다.

또한 농장에서의 차단방역관리가 중요한 만큼 국가차원의 차단방역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시장개방화 추세 이후 축산물의 수입자유화는 이제 당연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고 축산물의 수입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물의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검역과정을 통한 축산물의 유해물질 검사의 병원미생물 검사라고 할 수 있다.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지만 병원미생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일반인은 "삶아서 먹으면 되지 없어서 못 먹는다"라고 병원미생물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병원미생물의 유입은 해당사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피해를 주는 유해물질보다 훨씬 큰 국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병원미생물은 감염, 증식을 통해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고 생활주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산물의 검역에서 유해물질보다 병원미생물의 검사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의 차단방역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업무인 것이다.

어떠한 축산물에서 언제, 어떠한 종류의 병원미생물이 유입될지 모르는 끝도 없는 일이지만 국가차단방역을 위해서는 한시도 소홀할 수 없는 국가방역을 위한 첨병의 작업이다.

그리고 축산인 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백신의 검정이 있다. 백신의 검정업무도 국가의 차단방역관리 측면에서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독(생균)백신의 균주의 성상과 혼합된 병원미생물 여부를 밝히는 검정은 축산업계의 차단방역을 미리 앞서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방패와 같은 일이다.

백신에 혼입될 수 있는 병원미생물의 종류도 증가하고 잘 나타나지 않는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종류가 많으므로 밝혀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업무량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

야외에서 이미 백신이 사용되어 뿌려진 다음에는 병원미생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이 문제발생의 뿌리로서 자리잡아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는 검정업무는 국가의 차단방역관리를 위한 보이지 않는 첨병의 역할인 것이다.

이와같이 드러나지도 않는 일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하게 진행하는 관계인의 노고에 대해 축산인은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 농장, 지역, 국가와 같은 각 단위의 차단방역관리 업무가 상호간에 연결되어 근본적인 방역의 기초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자리를 잡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양계